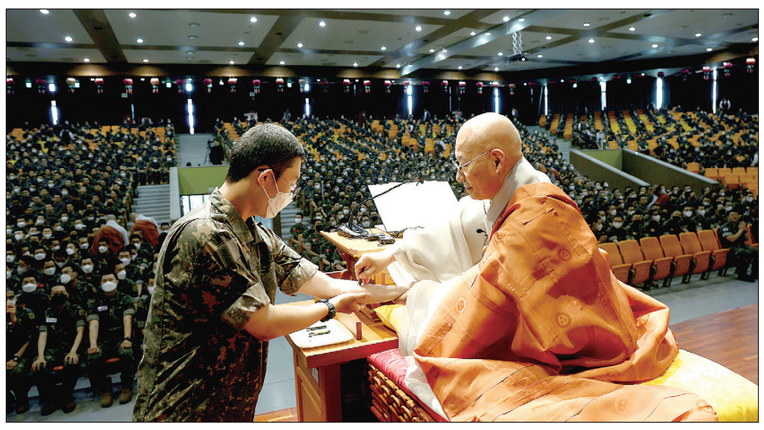
# 2000여 군장병, '불제자'로 거듭나다

**진우 스님,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계사로**
**계율 중요성, 장병에게 전해**
**포교 후원금 5000만원 쾌척**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서 장병들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저희 수계 제자들은 지금 대덕 법사님을 청해 우바새 우바니계의 계사로 모시옵니다. 저희는 이제 대덕 법사님을 의지해 삼귀의 오계를 받아 참된 불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원하옵건대, 대덕 법사님께서는 청정한 계를 주시옵소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수계사스님을 청하는 2000여 장병의 '청사(請師)'가 울려 퍼졌다. 이날 2000여 훈련병들은 신실한 불제자로 거듭났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스님)는 6월 1일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계사로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수계법회에는 전계사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인례법사로 군종교구장 법원·총무부장 성화·사서실장 진경 스님 등이 참석해 청년불자 2000여 명의 탄생을 증명했다.

법상에 오른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율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진우 스님은 "사람마다 있는 마음은 팔만 사천 가지 번뇌가 있고, 번뇌는 한량없는 업을 만들어 우리를 생사윤회의 고해 속에서 헤매게 한다"며 "무릇 계(戒)는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근본이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으로 향하는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계를 설한 진우 스님은 "부처님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잘못을 멀리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면서 "부처님의 오계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오계는 우리 불자의 생활신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의 법문 후 수계 장병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지은 죄에 대해 참회했으며, 계사스님과 인례법사 등은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귀의와 선계상을 통해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 수계 장병들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으로 살아갈 것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진우 스님은 법상에서 대표 장병 10명에게 수계증과 합장주를 전달했으며, 불자 장병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도 쾌척했다. 이에 군장병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우 스님에게 케이크를 선물했다.


한국 선불교 체험을 위해 방한한 데이비슨칼리지 불교 교법팀 교법사와 수강생들이 예불을 함께하는 모습.

# 美 데이비슨 칼리지, 한국 선불교 체험

**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주관**
**범어사 · 골굴사 · 해인사 방문**
**108배 · 차담 · 선명상 등 경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박 7일간 미국 데이비슨 칼리지 불교 교법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불교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교법사 이반(Rev. Dr. Ivan Mayerhofer)과 종교학 교수 레이첼 팽(Ph.D. Rachel H. Pang), 불교학 수강생 9명 등 총 11명이 동참했다.

이반 교법사와 레이첼 교수는 학생들이 한국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했고, 그 결과 '한국 불교 순례 프로그램(Buddhist Pilgrimage to South Korea)'을 기획했다. 데이비슨 칼리지 개교 이래 불교 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들은 약 10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부산 범어사, 경주 골굴사, 합천 해인사에서 각 2박 3일간의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다. 범어사에서는 108배, 스님과의 차담, 선명상 등을 체험했고, 해광사·금강암·해동용궁사 순례와 범어사 말사 및 암자를 참배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골굴사에서는 선무도를 익혔고, 해인사에서는 장경판전 순례와 인경 체험으로 한국불교를 배웠다.

레이첼 팽 교수는 "한국 사찰은 오랜 역사가 잘 보존돼 있고 멈춰있는 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불교가 있는 곳이다.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찰에서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고 한국 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앞으로도 한국 불교문화 전승과 계승, 그리고 방한 외국인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마케팅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 "문수 스님 발원한 평등세상 나아가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개운사서**
**문수스님 입적 14주기 추모다례**


서울 개운사에서 봉행된 문수 스님 입적 14주기 추모재.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이 헌다하고 있다.

"문수 스님께서 육신을 버려가며 세상에 던진 화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참회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우리들의 힘을 모아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4대강 개발사업 중단과 뭇 생명의 평화를 염원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입적 14주기 추모 다례재가 5월 31일 서울 개운사에서 봉행됐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이 후원한 이번 다례재에는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종원 스님, 개운사 주지 보림 스님과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 중앙승가대 총학생회 임원단 학인스님과 문수 스님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다례재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에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한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문수 스님은 늘 사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중앙승가대와 종단 발전, 나아가 나라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문수 스님의 자비 가득한 마음은 이 사회에 경책의 죽비와 같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두 하나 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문수 스님께서 간절히 발원했던 사회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에게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자비심을 일깨워 주셨기에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의 공덕을 다시 한 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일체중생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수 스님의 도반인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생전 중앙승가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성화 스님은 "5월 이맘때가 되면 30여 년 전 이곳 중앙승가대 안암동 학사에서 수학했던 그때가 생각난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문수 스님은 세상에 큰 화두를 남기고 떠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기후위기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고통받고 있다"며 "문수 스님의 깊은 뜻을 잘 새겨 다시금 환경보호와 이웃을 보듬는 데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대중은 스님을 기리는 천도의식인 종사영반이 진행되는 동안 차와 꽃을 올리며 스님의 유지를 되새기고,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수 스님은 1986년 합천 해인사에서 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20여 년간 수좌의 길을 걸었다. 2006~2007년 청도 대산사 주지 소임을 역임한 이후 군위 지보사에 머물면서 일종식하며 수행에만 매진했다.

문수 스님은 2010년 5월 31일 군위군 위천 제방에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지·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납 49세, 법납 25년으로 소신공양을 결행했다.

김내영 기자

# '열암곡 마애불' 공모전, 작품 1천편 접수

**소설부문 허영숙 씨 '꿈꾸는 정물' 대상 선정**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향한 국민적 관심 고취를 위해 진행된 문학작품 공모전에 1천여 편의 작품이 접수돼 성황을 이뤘다. 수많은 작품 가운데 대상의 영예는 소설 '꿈꾸는 정물'을 쓴 허영숙 씨에게 돌아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미래본부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문학작품 공모전에 총 540명이 참여해 1015편의 작품이 접수됐다"며 "예심과 3차례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종정예하상) 1작품, 최우수상(총무원장상) 2작품, 우수상(국가유산청장상) 4작품, 장려상(문화부장상) 7작품, 입선 14작품(미래본부 사무총장상), 총 28작품이 선정됐다"고 6월 5일 밝혔다.

대상은 소설부문(성인) 허영숙 씨가 쓴 '꿈꾸는 정물'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시·시조부문(성인) 신춘희 씨의 '내 등의 부처'와 수필부문(청소년) 최보현 학생의 '만다라'다. 시상식은 6월 20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작품들이 좋은 소재로서 콘텐츠를 확장되고 불자들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심사평을 했다.

윤호섭 기자


제50회 삼보여름불교대학
'불교의 세계관과 휴머니즘'

60년간 지성불교의 산실로 불교의 정법구현과 대중화를 선도해 온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가 제50회 여름불교대학을 개설합니다.**

**일 시 |** 불기2568년 7월 7일부터 8월 25일 총 8주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 삼보정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08(서경대학교 정문 앞) TEL : 02-913-2859
(지하철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 마을버스 1164, 2115번 이용 꿈나라도서관 하차)
**동참금 |** 3만원 (2개월)

**부설** | 삼보법회, 삼보여름불교대학, 삼보선원, 삼보사이버불교대학, 삼보법사회, 삼보장학회, 삼보연꽃어린이집, 수행도량 삼보정사

| 일 자 | 법 사 | | 주 제 |
|---|---|---|---|
| 7월 7일 | 석연 정병조 교수 | 금강대학교 제4대 총장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삼보사이버불교대학장 | 불살생과 비폭력 |
| 14일 | 준한 스님 | 홍대선원 주지 | 기후 위기의 세상 속 우리들의 수행 |
| 21일 | 혜융 스님 | 중앙승가대학 비구 수행관장 | 마음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센션티즘 (sentientism) |
| 28일 | 법담 이필원 교수 |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부교수 | 인간의 경계 너머, 연기의 세계 |
| 8월 4일 | 고연 최종석 교수 | 금강대학교 명예교수 | 세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
| 11일 | 성암 종범 스님 | 중앙승가대학교 제 4대 총장 삼보여름불교대학 학장 | 특 별 법 문 |
| 18일 | 법운 유정길 법사 |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 포스트 휴먼시대의 불교적 실천 |
| 25일 | 정명 황순일 교수 | 동국대학교 교수 | 다툼과 분열을 대하는 불교인의 자세 |

불기 2568년 6월 2일
삼보여름불교대학 학장 성암 종범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보회 이사장 유 억 근